**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동역자님들께 평안으로 소식을 전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 땅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 지난 9일 A국의 오랜 전쟁이 끝나고 평화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94년 A국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난민과 전사자들의 많은 희생과 마음 아팠던 기도에 함께 간구하셨던 동역자님들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평화협정이 성실하게 이행되어 점령당했던 영토를 반환 받고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9월말부터 재개된 전쟁으로 교제했던 영혼들의 친척 중에 전사자도 있고 V 자매 고향과 M 부인의 친정 식구들이 전쟁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살아서 기도부탁을 하며 마음 졸이고 있었습니다. 평화협정 소식으로 저 민족이 국기를 흔들며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모습을 뉴스로 보면서 한편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받은 감격의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 오래 교제하면서 한식 강사로 양육하고 있는 U 부인이 꾼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꿈에 세례 받으라는 음성과 딸도 세례를 받으라고 해서 딸에게도 얘기했더니 딸은 오래 전에 한국에 가기 전부터 회교에서 돌아섰다고 했고, 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다” 아침에 꿈을 깬 후 딸과 사위에게도 얘기하고 전화로 얘기할 수 없어서 직접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꿈을 통해 주님이 계시한 것 같으니 경히 여기지 말고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딸은 이혼 후에 재결합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는데 자녀도 주시기 기도하며 성령께서 일하시고 저들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선하게 인도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며 말씀으로 교제하여 주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되어 파송 교회에 2020년 사역과 재정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환자의 증가 추세로 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봄에 한식 동영상 4편을 만들고 가을에 온라인으로 4주 강좌를 한 것이 외부 활동이었고, 후원금이 입금된 만큼 지출하는 재정 보고서였습니다. H부인의 주변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많고 큰딸이 둘째를 임신했고 또 집에서 외손자를 돌보고 있어서 조심하느라 7개월만에 한국산 마스크를 나누느라 한 번 대면 교제했고, N도 둘째를 임신 중이라 조심스러워서 추석에 마스크 나눌 겸 대면 교제했습니다. AS는 한국어 공부도하고 올해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도 안되고, 여동생은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했고, 현재의 모든 상황이 답답하고 우울하다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백신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도 주님께서 하루 하루를 인도하시고 영혼들을 친히 만나 주셔서 구원에 관한 이유를 질문하기를 기도합니다.

가을에 건강검진(치과, 비염, 손가락 관절염)과 모친부양을 위해 계획했던 입국은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기를 소원하며 김에스더 드립니다.